에세이 개요- 과학적 진리와 과학의 진보

**\* 개인적 견해: 과학에서 진리와 진보는 무엇일까**

**\* ‘추측과 논박’에서의 칼 포퍼의 주장**

원리상 비판가능성이 없는 것은 사이비 과학이다.

비판가능성이 있으나 여러 비판적인 시험을 통과한 이론은 ‘참’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로썬 믿을 만하고 가치 있다.

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추측만이 의미가 있다.

의미 있는 추측(가설 설정)과 논박(비판과 시험)이 반복되면서 이론들은 진리에 근접해 간다.

진리를 탐구하지만 진리에 도달했는지 모를 수 있다: 등산가의 예-450p

**\* ‘과학 혁명의 구조’에서의 토머스 쿤의 주장**

패러다임: 당시대의 어떤 문제에 대한 풀이/어떤 현상에 대한 가정/이론 등의 특성 -> 당시 사람들에 대한 믿음으로 미루어지는 것으로, 절대적인 것이 아닌 상대주의적인 개념

과학 발전의 과정: 전 과학 -> ‘패러다임’ 출현 -> 정상 과학 -> 기존 패러다임의 부족함을 발견 -> 과학혁명, 새로운 패러다임의 확립, 새 정상 과학이 됨

새 패러다임이 이전의 패러다임의 모든 것을 설명한다는 보장은 없다.

과학이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발전을 하긴 하지만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.

**\* 포퍼와 쿤의 주장을 참고한…**

**- 과학적 진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**

‘패러다임’이란 포퍼의 반증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‘의미 있는 추측’과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과학을 발전시키는 방법이 조금은 다르다.

패러다임-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내놓은 새로운 과학. 이가 의심, 도전을 받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교체되며 과학이 발전

의미 있는 추측-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내놓은 다양한 추측. 반증되면 바로 폐기되나, 여러 반증을 버텨낼수록 이의 가치가 높아지고 과학이 발전

수많은 시험을 통과한 추측들이 시대의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게 된다?

**- 과학의 진리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**

진리란 모든 것의 이치이고,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한다면 이는 진리에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.